

## 農村住民의 吸煙 및 飲酒 實態와 이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分析

南 喆 鉉

(大邱韓醫科大學 保健大學院)

〈目 次〉

- |          |                |
|----------|----------------|
| I. 序 論   | III. 調查結果 및 考察 |
| II. 研究方法 | IV. 結論 및 提言    |

### I. 序 論

人間은 누구나 健康하게 오래도록 잘살기를 원하고 있다. 이것은 健康이 個人과 家族의 幸福 그리고 社會나 國家의 번영에 절대적으로 必要한 基本 條件이기 때문이다. 또한 健康은 勞動의 能率과 生産性 제고의 原動力으로서도 확보되어야 하므로 保健醫療 問題는 오늘날 經濟社會開發을 위한 基本戰略의 하나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課題中的의 하나이다.<sup>10)</sup>

그러나 우리들의 健康을 유지하고 增進하는데는 個人的 努力도 重要하지만 國民들의 生活樣式, 習慣, 經濟狀態, 教育, 文化 및 科學의 水準 등 社會의인 影響을 크게 받고 있다. 특히 住民들의 保健에 대한 意識行態 水準은 그 나라의 保健狀態 水準을 가름하는데 결정적인 影響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國民들의 健康은 단순히 國家次元的 保健醫療 政策이나 保健醫療 專門家들의 努力만으로 이루어 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地域社會 住民들이 健康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意識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地域社會 保健 활동에 直接 間接의으로 참여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참여는 住民들의 健康에 대한 올바른 行爲水準 즉 保健意識 行態와 밀접한 關係가 있는 것이다.

특히 健康에 影響을 미치는 個人的인 行態要素로서는 吸煙과 飲酒등을 들수가 있으며 이들요소는 많은 非傳染性 病患 특히 慢性 退行性 病患과 重毒 및 事故 發生과 直接的인 關係가 있기 때문에 더욱 重要하다.

담배의 成分은 4천여가지나 있으나 그 중 주요 有害成分으로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산, 크레졸, 석탄산 등을 들 수 있으나 重要한 것은 타르와 벤조피렌 등 發癌物質이 있어서 肺癌 發生率을 非吸煙者보다 3배나 높이고 있으며<sup>4)6)13)16)</sup>, 心臟疾患 1.7배, 말초신경 閉鎖性疾患 2.5배, 腦血管 疾患 1.5배를 나타내고 있고 그의 慢性氣管支炎, 肺氣腫, 肺炎, 胃臟疾患 등의 發生에 直·間接의으로 吸煙이 많은 影響을 미치고 있다. 慢性呼吸器 疾患者에서는 呼吸者가 非吸煙者보다 氣管支炎으로 죽는 比率이 20배나 높다<sup>13)</sup> 그리고 妊産婦 吸煙者는 先天性 奇形兒, 未熟兒, 自然遺産의 증가를 가져오기도 한다. 또한 金<sup>6)</sup>과 Pearl<sup>21)</sup>은 吸煙者가 非吸煙者 보다 死因別 死亡率이 2배 이상 다고 하였고 Hammand 와 Horn<sup>19)</sup>은 하루 1갑피울 경우 壽命이 8년 단축된다고 했으며 하루 2갑 피울 경우 非吸煙者의 42배나 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담배는 거의 百해무익하지만 習慣性이 있어서 吸煙者가 늘고있어 禁煙에 대한 적절한 對策이 시급히 要求된 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精神的, 情緒的, 身體的 그리고 社會的으로 유익하며 健康을 해치는 일이 없다.<sup>15)</sup> 술을 잘못 마시거나 많이 자주 마시는 경우에 貧困과 家庭의 파탄, 社會的 갈등, 生活能力 상실, 健康障礙 등 身體的, 精神的, 社會的으로 問題가 생긴다.<sup>4)13)</sup>

알콜은 血中 濃度가 높아질 수록 判斷, 記憶, 學習能力, 作業能力 등 精神作用을 지배하는 精神的 및 自律的 機能을 저하시키며 協同運動의 失調, 注意力消失, 작각, 혼미, 지각마비가 일어난다<sup>4)11)</sup>, 血中 알콜 濃度가 0.3~

0.4%면 意識 상실, 0.5%이상이면 死亡하게 된다. 특히 자주 마실경우 알콜 中毒者가되어 社會的, 家庭的으로 과탄을 초래하게 된다. W.H.O의 統計에 의하면 오늘날 알콜 中毒者는 成人人口 1000명당 미국 44명, 프랑스 28.5명, 스웨덴 26명이며 음주자 15명중 1명은 알콜 中毒者가 된다고 한다.<sup>13)</sup> 또한 미국에서 生命保險에 가입한 자를 52년간 集計한 結果에 의하면 飲酒者의 死亡率이 小量 飲酒者는 非 飲酒者에 비하여 18%, 中정도의 飲酒者는 50%, 계속적인 中등량 이상 飲酒者는 86%나 높았다고 한다.<sup>3)</sup>

더구나 알콜은 마취작용에 의하여 調節力, 注意力, 集中力, 判斷力, 記憶力등에 영향을 미쳐서 協同運動의 失調와 作業速度를 지연시켜 각종 事故를 유발하고 있다.<sup>3)1)</sup> 3온스의 위스키는 0.1초 正常 反應時間을 0.4초로 늦어지게 한다고 한다.

근래에 이르러 飲酒運轉에 의한 交通事故와 각종 犯罪의 발생이 나날이 增加하고 있으며 특히 靑少年의 吸煙과 飲酒로 인한 社會問題는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다. 先進國에서도 增加해가고 있는 肺癆, 循環器系 疾患, 알콜중독, 飲酒交通事故 등에 대하여 관심과 비중을 두고 있으며 世界保健기구에서도 4월 7일 保健의날을 禁煙의날로 정하여 世界的으로 禁煙運動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들 個人的인 健康行爲要素에 대한 연구는 必要하고 重要하다.

本 研究에서는 많은 保健意識行態 중에서 重要的인 健康要素인 吸煙 및 飲酒에 대하여 住民들의 行態를 調査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諸要因을 分析하여 國民健康을 위한 保健教育 事業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되는 基礎資料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 本 調査를 실시하

였다.

## II. 研究方法

本 研究는 調査員으로 大學生을 選拔하여 教育시킨 후 1988年 8月3일부터 22日까지 20日間 全國의 132個郡(도시지역 제외)을 現地出張시켜 그 地域 邑面住民과 直接面談케하며 調査하였다. 系算事情으로 標本의 數가 極히 制限되어 1,900設問紙가 調査되었으며 그중 有效答紙 1,846名分을 整理하여 電算處理하였다.

調査內容은 吸煙率과 吸煙量, 飲酒率과 飲酒量에 局限하였고 影響을 미치는 變數設定은 가장 基本的인 性別, 年齡, 教育程度, 職業 등 社會變數로 하였다.

## III. 調査結果 및 考察

### 1. 應答者의 一般特性

#### 가) 性別

總 應答住民의 수는 1,846명이며 이중 男子는 55.7%, 女子는 44.3%로 男子 應答者수가 더 많았다. 道別 男女別 應答者 분포는 <표1-1>과 같다.

#### 나) 年齡別

應答者의 年齡은 20-29세군이 30.4% 가장 많았고 30-39세군이 29.4%로 次位이며 40-49세군이 19.5%, 50-59세군이 15.3%순이었으며 平均年齡은 38.6세였다.<표 1-2>

應答者 年齡은 道別로 보면 30세 미만의 應答者가 가장 많은 도는 江原, 忠北, 全北, 慶北道이었다. 30-39세군의

表 1-1. 性別 應答者

도별	구분	남	여	계
		No. (%)	No. (%)	No. (%)
경 기		145(52.9)	129(47.1)	274(100.0)
강 원		116(51.1)	111(48.9)	227(100.0)
충 북		96(58.2)	69(41.8)	165(100.0)
충 남		113(54.1)	96(45.9)	209(100.0)
전 북		107(56.3)	83(43.7)	190(100.0)
전 남		101(52.1)	93(47.9)	194(100.0)
경 북		209(58.1)	151(41.9)	360(100.0)
경 남		142(62.6)	85(37.4)	227(100.0)
계		1029(55.7)	817(44.3)	1846(100.0)

應答者가 가장 많은 도는 京畿, 忠南, 慶南이었다.

다) 職業

設問紙에 應答한 住民의 職業을 分析해 보면 農業이 409명 22.2%로 가장 많고 商業이 19.9%로 次順位이며 公職者가 13.2%로 그 다음이었다.<표1-3>

라) 學歷

學歷別 應答者를 보면 高卒(高中退 포함)이 44.0%로 가장 많고 中卒(中退 포함)이 18.4%로 次位이고 大卒(中退 포함)은 17.9%로 그 다음이었으며 國民學校 13.6%, 無學이 5.7%였다. 中卒以上이 80.6%로서 本研究 應答者의 學歷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표 1-4>

表 1-2 年齡別 應答者

구분 도별	20~29	30~39	40~49	50~59	60~69	70세이상	무응답	계
	No.(%)	No.(%)	No.(%)	No.(%)	No.(%)	No.(%)	No.(%)	No.(%)
경 기	77(28.1)	91(33.2)	53(19.3)	37(13.5)	14(5.1)	1(0.4)	1(0.4)	274(100.0)
강 원	69(30.4)	55(24.2)	53(23.4)	34(15.0)	15(6.6)	1(0.4)	--	227(100.0)
충 북	66(40.0)	45(27.3)	24(14.5)	21(12.7)	7(4.3)	2(1.2)	--	165(100.0)
충 남	62(29.7)	71(34.0)	35(16.7)	34(16.3)	6(2.9)	--	1(0.5)	209(100.0)
전 북	57(30.3)	53(27.9)	42(22.1)	28(14.7)	6(3.2)	4(2.1)	--	190(100.0)
전 남	59(30.4)	59(30.4)	43(22.2)	27(13.9)	6(2.1)	--	--	194(100.0)
경 북	105(29.2)	99(27.5)	68(18.9)	62(17.2)	24(6.7)	1(0.3)	1(0.3)	360(100.0)
경 남	66(29.1)	69(30.4)	42(18.5)	39(17.2)	9(4.0)	0(0)	2(0.9)	227(100.0)
계	561(30.4)	542(29.4)	360(19.5)	282(15.3)	87(4.7)	9(0.5)	5(0.3)	1846(100.0)

表 1-3 職業別 應答者

구분 도별	회사원	공무원	서비스업	농업	학생	교직원	상업	기타	무응답	계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경 기	30 10.9	28 10.2	27 9.9	82 30.0	14 5.1	3 1.1	55 20.1	35 12.8	--	274 100.0
강 원	33 14.7	32 14.1	26 11.5	42 18.5	9 4.0	2 0.9	52 22.9	31 13.7	--	227 100.0
충 북	22 13.3	15 9.1	20 12.1	42 25.5	16 9.7	1 0.6	32 19.4	16 9.7	10.6	165 100.0
충 남	19 9.1	33 15.8	32 15.3	42 20.1	14 6.7	2 1.0	44 21.1	23 11.0	--	209 100.0
전 북	26 13.7	27 14.2	27 14.2	42 22.1	10 5.3	10 5.3	43 22.6	25 13.2	--	190 100.0
전 남	28 14.4	17 8.8	26 13.4	22 11.3	9 4.6	5 2.6	53 27.3	20 10.3	--	194 100.0
경 북	27 7.5	53 14.7	51 14.2	36 10.0	7 1.9	4 1.1	64 17.8	72 20.0	--	360 100.0
경 남	27 11.9	38 16.7	26 11.5	82 36.1	6 2.9	11 4.8	25 11.0	33 14.5	--	227 100.0
계	212 11.5	243 13.2	235 12.7	409 22.2	85 4.6	38 2.1	368 19.9	255 13.8	1 0.1	1846 100.0

表 1-4 學歷別 應答者

구분 도별	무학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상	무응답	계
	No.(%)	No.(%)	No.(%)	No.(%)	No.(%)	No.(%)	No.(%)	No.(%)
경 기	13 4.7	39 14.2	42 15.3	128 46.7	50 18.2	1 0.4	1 0.4	274 100.0
강 원	18 7.9	35 15.4	36 15.9	117 51.5	21 9.3	--	--	227 100.0
충 북	5 3.0	18 10.9	26 15.8	82 49.7	33 20.0	--	1 0.6	165 100.0
충 남	7 3.3	19 9.1	41 19.6	94 45.0	46 22.0	2 0	--	209 100.0

구분 도별	무 학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상	무응답	계
	No. (%)	No. (%)	No. (%)	No. (%)	No. (%)	No. (%)	No. (%)	No. (%)
전 북	13 6.8	20 10.5	33 17.4	87 45.8	37 19.5	- -	- -	190 100.0
전 남	9 4.6	24 12.4	43 22.2	86 44.3	32 16.5	- -	- -	194 100.0
경 북	29 8.1	69 19.2	79 21.9	119 33.1	61 16.9	2 0.6	1 0.3	360 100.0
경 남	11 4.8	27 11.9	40 17.6	99 43.6	50 22.0	- -	- -	227 100.0
계	248 13.0	251 13.6	340 18.4	812 44.0	330 17.9	5 0.3	3 0.2	1846 100.0

## 2. 吸煙

### 가) 性別 吸煙 정도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農漁村 住民의 吸煙率은 41.8%였으며 性別 로는 男子의 경우는 19.8%만이 非吸煙者이고 2/3가 넘는 76.0%가 吸煙하고 있었다.

吸煙量은 하루에 1갑 피우는 男子가 住民의 40.1%였는데 이를 吸煙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면 吸煙者의 약 半數이상(52.8%)이었다. 2일에 1갑은 17.6%(吸煙者의 23.1%)였고 하루에 1갑이상 피우는 住民은 12.8%(吸煙者의 16.9%)였다. 이는 1984년 南<sup>10)</sup>의 調査에서 나타난 吸煙者 78.6%보다 2.6%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本 調査에서는 無應答者가 4.2%가 있기 때문에 이의 半을 吸煙者라고 가정한다면 거의 비슷한 結果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1985년 권<sup>59)</sup>의 調査에서 나타난 吸煙率 32.0%(男子 6.15%, 女子 6.8%)에 비하면 9.8%포인트나 增加하였다. 이는 男子의 경우 미국 36%, 영국 41%, 호주 41%, 스웨덴 42%등 先進國의 약1.9배에 해당되어 아직 男子가 吸煙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女子의 경우는 77.8%가

피우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전체의 7.6%가 吸煙者로 나타났다. 이는 南<sup>10)</sup>의 調査에서 나타난 女子 吸煙者 7.8%와도 비슷한 統計치이나 非吸煙者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1984년도 調査에서는 92.2%가 非吸煙者 였는데<sup>5</sup> 1988년 調査에서는 77.8%가 非吸煙者로 나타나 해석에 따라서는 女子의 吸煙者가 크게 增加했다고 볼 수 있다. 즉 無應答者 14.7%는 일단 吸煙者라고 간주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나 절반만을 合算한다 해도 15.2%가 되어 女子의 吸煙率은 큰 폭으로 增加했음을 알 수 있었다. 1988년 한국켈럼에서 조사한 결과<sup>9)</sup>인 韓國인의 흡연율은 1982년(남 67.7%, 여 5.0%), 1986년(남 73.7%, 여 5.0%), 1987년(남 74.2%, 여 5.0%)에 비하여 本 研究의 吸煙率(남 76.8%, 여 7.5%)은 크게 增加했다고 볼 수 있다. 吸煙量은 2일 1갑피우는 女子가 3.4%로 가장 많았으며 하루 1갑이상은 2.5%였다. 아직 우리나라 女子의 吸煙率은 外國女性 吸煙率 14-40%에 비하면 아직은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最近 우리나라 都市地域의 女性 吸煙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報告書<sup>17)</sup>(女性의 19.8%가 吸煙者로 都市女性 5명중 1명이 吸煙者)가 나와 충격을 준 바 있다.

表 2-1. 性別 吸煙程度

흡연량 성별	하루1갑	2일에1갑	3일에1갑	1일1갑이상	피우지않음	무응답	계
	No. (%)	No. (%)	No. (%)	No. (%)	No. (%)	No. (%)	No. (%)
남	413(40.1)	181(17.6)	56(5.4)	132(12.8)	204(19.8)	43(4.2)	1029(100.0)
여	17(2.1)	28(3.4)	14(1.7)	3(0.4)	636(77.8)	120(14.7)	817(100.0)
계	430(23.3)	209(11.3)	70(3.8)	135(7.3)	840(45.5)	163(9.0)	1846(100.)

### 나) 年齡別 吸煙程度

年齡別 吸煙量은 40-49세군에서 1일 1갑 吸煙者가 27.8%, 1갑 이상이 10.3%로 가장 많은 吸煙量을 보였다. 다음은 50-59세군으로 하루에 1갑이 27.3%, 1갑 이상이 8.2%로 나타났다. 이는 종래의 全國調査<sup>5)</sup>에서 보인 30

대의 吸煙率이 가장 높은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흥미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보겠다. 非吸煙者는 20-30세군에서 54.9%로 가장 많았고 30-39세 군에서 44.6%, 50-59세 군 40.4%, 40-49세 군 39.4%의 順이었다. 〈표 2-2〉. 3일에 1갑정도로 적게 피우는 吸煙者는 年齡이 높을 수록 많아

서 나이가 들수록 健康에 대한關心이 높아 담배의 吸煙量 을 줄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表 2-2. 年齡別吸煙程度

연령	흡연량	하루1갑	2일에1갑	3일에1갑	1일1갑이상	피우지않음	무 응 답	계
	No. (%)	No. (%)	No. (%)	No. (%)	No. (%)	No. (%)	No. (%)	No. (%)
30세미만	95(16.9)	68(12.1)	12( 2.1)	22( 3.9)	308(54.9)	52( 9.3)	561(100.0)	
30~39세	133(24.5)	59(10.9)	16( 3.0)	45( 8.3)	242(44.6)	47( 8.7)	542(100.)	
40~49세	100(27.8)	33( 9.2)	19( 5.3)	37(10.3)	142(39.4)	29( 8.1)	360(100.0)	
50~59세	77(27.3)	30(10.6)	15( 5.3)	23( 8.2)	114(40.4)	23( 8.2)	282(100.0)	
60~69세	23(26.4)	17(19.5)	7( 8.0)	6( 6.9)	28(32.2)	6( 6.9)	87(100.0)	
70세이상	2(22.2)	1(11.1)	--	2(22.2)	3(33.3)	1(11.1)	9(100.0)	
무 응 답	--	1(20.0)	1(20.0)	--	3(60.0)	--	5(100.0)	
계	430(23.3)	209(11.3)	70( 3.8)	135( 7.3)	840(45.5)	162( 8.9)	1846(100.0)	

다) 學歷別 吸煙程度

教育程度別 吸煙量을 보면 하루에 1갑 또는 1갑 이상 비교적 많이 피우는 율은 學歷이 높을 수록 높았으며 (大學院 40%, 大學36.4%, 高等學校 29.8%), 3일에 1갑정도 적게 피우는 율은 學歷이 낮을 수록 높게 나타났다.

非吸煙者는 中學校 教育程度가 49.1%로 가장 높았고 國民學校 47.4%, 高等學校 46.6%로 나타났다.<표 2-3>.

吸煙量과 관계없이 無應答者를 제외한 吸煙率은 大學 卒業者가 58.8%로 가장 높고 無學은 54.4%, 中卒 48.0%의 순이었다.

表 2-3. 學歷別 吸煙程度

학력	흡연량	하루1갑	2일에1갑	3일에1갑	1일1갑이상	피우지않음	무 응 답	계
	No. (%)	No. (%)	No. (%)	No. (%)	No. (%)	No. (%)	No. (%)	No. (%)
무 학	17(16.2)	19(18.1)	8( 7.6)	6( 5.7)	41(39.0)	14(14.3)	105(100.0)	
국민학교	51(20.3)	26(10.4)	15( 6.0)	16( 6.4)	119(47.4)	24( 9.6)	251(100.0)	
중 학교	83(24.4)	28( 8.2)	14( 4.1)	28( 8.2)	167(49.1)	20( 5.9)	340(100.0)	
고등학교	191(23.5)	86(10.6)	18( 2.2)	51( 6.3)	378(46.6)	88(10.8)	812(100.0)	
대 학	86(26.1)	49(14.8)	14( 4.2)	34(10.3)	131(39.7)	16( 4.8)	330(100.0)	
대학원이상	2(40.0)	1(20.0)	1(20.0)	--	1(20.0)	--	5(100.0)	
계	430(23.3)	209(11.3)	70( 3.8)	135(45.5)	840(45.5)	162( 8.9)	1846(100.0)	

라) 職業別 吸煙程度

職業別로 본 非吸煙率은 學生이 54.1%로 가장 높고 서비스업 43.4%, 會社員 40.1%, 教職員 39.5%의 순이었으며 吸煙率은 農(漁)業에서 가장 높고 公務員, 教職員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 職業別로 吸煙量을 보면 1일

1갑 또는 1갑 이상 피우는 경우는 公務員에서 39.6%로 가장 높았고 農(漁)業 39.2%, 商業 37.9%, 教職員 34.2%, 서비스업 31.9%, 會社員 31.6%의 순이었다.

公務員들의 吸煙量이 많은 것은 스트레스가 他職種보다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表 2-4. 職業別 吸煙程度

직업	흡연량						
	하루1갑 No. (%)	2일에1갑 No. (%)	3일에1갑 No. (%)	1일1갑이상 No. (%)	피우지않음 No. (%)	무응답 No. (%)	계 No. (%)
농(어)업	73(28.6)	34(13.3)	17( 6.7)	27(10.6)	89(34.9)	15( 5.9)	255(100.0)
회사원	53(25.0)	33(15.6)	8( 3.8)	14( 6.6)	85(40.1)	19( 9.0)	212(100.0)
공무원	74(30.5)	28(11.5)	3( 1.2)	23( 9.5)	93(38.3)	20( 8.2)	243(100.0)
서비스업	56(23.8)	35(14.9)	5( 2.1)	19( 8.1)	102(43.4)	18( 7.7)	235(100.0)
상업	117(28.6)	44(10.8)	18( 4.4)	38( 9.3)	171(41.8)	21( 5.1)	409(100.0)
학생	16(18.8)	12(14.1)	4( 4.7)	2( 2.4)	46(54.1)	3( 3.5)	85(100.0)
교직원	12(16.3)	2( 5.3)	4(10.5)	3( 7.9)	15(39.5)	4(10.5)	38(100.0)
기타	31( 8.2)	21( 5.7)	11( 3.0)	9( 2.4)	239(64.9)	58(15.8)	369(100.0)
계	430(23.3)	209(11.3)	70( 3.8)	135( 7.3)	840(45.5)	162( 8.9)	1846(100)

마) 吸煙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

吸煙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을 分析하고자 調査된 變수로서 性別, 年齡, 結婚狀態, 學歷, 職業을 變수로 하여 多重 回歸分析을 한바 結果는 <표2-5>와 같다. 吸煙에는 性別 變수가 B= .1761로써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職業은 B= .1688, 教育程度 (B= .1671), 年齡(B=

.1125)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세變수는 1%수준에서 統計學적으로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었다(p<0.01). 年齡은 B= .1125로써 이들變수 중 4번째로 吸煙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5%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고 있다(p<0.05). 이들은 약 19%의 說明變량을 보였다.

表 2-5. Variance Explained by Variables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Smoking.

Variable	STB	F	BETA	R <sup>2</sup>
Sex	.1749	12.2624**	.1761	.1880
Occupation	.3742	11.3822**	.1688	.1895
Education	.1733	10.3872**	.1671	.1899
Age	.4505	6.3225*	.1125	.1904
Marital Status	.8605	1.2465	.0866	.1908
Constant	.4923	(df=5)		
R <sup>2</sup>	.19082			

\*p<0.05 \*\*p<0.01

### 3. 飲酒

가) 性別飲酒 程度

男子의 경우 81.7%가 飲酒를 하며 女子는 38.9%가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女子의 경우 無應答者가 14.1%로 높은 것을 감안하면(실제로 飲酒者가 無應答했을 可能性이 높음으로) 실제 飲酒率은 더 높을것으로 생각된다. 飲酒量은 일반적으로 男子의 경우 1회에 맥주

3병 정도가 18.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맥주2병으로 17.8%였으며, 5병 이상 13.7%, 10병 이상은 12.1%로 나타났다. 女子의 경우 맥주2잔이 12.1%로 가장 높았으며 맥주 1잔이 11.5%, 맥주1병 8.6%순이었다.<표3-1> 술을 마시지 않는 男子는 15.2%, 마시지 않는 女子는 48.1%였다.

본 調査 結果는 1984년 南의 調査에서 나타난 男子 飲酒率 80%와 女子 飲酒率 17.0%에 비하면 男子는 1.

7% 増加했으나 女子는 21.9%의 엄청난 増加를 보였다. 이는 南의 調査는 全國대상이었고 본 調査는 農村住民 대상이었으므로 農村女性들의 飲酒率이 都市女性들의 飲酒率보다 높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 年齡別 飲酒程度

年齡別 飲酒量을 보면 나이가 젊을 수록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을 알수 있었으며 반면 술을 마시지 않는 非飲酒者는 나이가 많을 수록 많음을 알수가 있었다. 이는 1984년 南의 調査에서도 나타난 結果와도 일치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을 수록 健康 등에 대한 관심의 増加와 社會活動의 減少로 飲酒에 대한 의욕과 기회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0-29세 군과 30-39세군에서는 非飲酒者가 각각 27.6%와 28.0%로 가장 적었으며 3명과 5명정도 마시는 飲酒者는 30-39세군에서 가장 높았고, 10명 이상은 각각 7.5%와 7.7%로 나타났다. 40-49세군에서는 1명이 14.4%로 가장 높았으며 2명 11.9%, 3명 8.6%의 순이었는데 10명 이상은 8.1%로 다른 年齡群에서 보다 높았다. 50-59세군에서는 2명이 14.2%로 가장 높았으며 3명 12.4%, 1명 10.6%순이었으며 5명 이상 6.0%, 10명 이상 5.3%였다. 60-69세군에서는 2명이 12.6%, 1명이 11.5%였고 5명은 3.4%, 10명 이상은 없었다.<표3-2>

다) 學歷別 飲酒程度

學歷이 높을수록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非飲酒者는 無學이 41.0%로 가장 높았고 國民學校 40.2%, 中學校 33.5%, 高等學校 10.7%의 순이었다. 飲酒量은 3명 飲酒가 高等學校 學歷者와 大學學歷者에서 각각 11.2%와 1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명으로 大學學歷者 14.2%, 高等學校 學歷者 10.2%였다. 5명 이상 飲酒者는 大學學歷者가 11.5%, 高等學校 學歷者가 7.8%, 中學校 6.8%, 國民學校 6.4%의 順이었고 10명 이상도 大學學歷者가 9.7%로 가장 많았다.<표3-3>

라) 職業別 飲酒程度

<표3-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의 比率는 商業 31.3%, 農業 28.2%, 서비스업 26.8%, 學生 25.9%의 順으로 높았으며 飲酒比率는 公務員에서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會社員 72.2%, 教職員 68.4%로 다음이었다.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職種에서 술을 자주 마시는 것으로 판단된다.

飲酒量은 한번에 3명이 農業, 公務員, 學生에서 각각 14.9%, 14.4%, 14.1%로 가장 많았고 1명은 會社員 15.1%, 教職員 2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명 이상은 教職員 13.2%, 會社員 11.3%, 學生 10.6%, 産業 9.0%로 높았다. 10명 이상은 教職員 10.5%, 公務員 9.9%로 높았으며 서비스업과 商業이 양자 공히 8.1%였고 學生이 4.7%로 가장 낮았다.

表 3-1. 性別 飲酒程度

주량	맥주1잔	2잔	1명	2명	3명	5명이상	10명이상	안마신다	무응답	계
성별	No. (%)	No. (%)	No. (%)	No. (%)	No. (%)	No. (%)	No. (%)	No. (%)	No. (%)	No. (%)
남	20(1.9)	50(4.9)	127(12.3)	183(17.8)	185(18.0)	141(13.7)	125(12.1)	156(15.2)	42(4.1)	1029(100.0)
여	94(11.5)	99(12.1)	70(8.6)	22(2.7)	17(2.1)	2(0.1)	3(0.4)	393(48.1)	115(14.1)	817(100.0)
계	114(6.2)	149(8.1)	197(10.7)	205(11.1)	202(10.9)	143(7.7)	128(6.9)	549(29.7)	157(8.5)	1846(100.0)

表 3-2. 年齡別 飲酒程度

주량	맥주1잔	2잔	1명	2명	3명	5명이상	10명이상	안마신다	무응답	계
연령	No. (%)	No. (%)	No. (%)	No. (%)	No. (%)	No. (%)	No. (%)	No. (%)	No. (%)	No. (%)
30미만	46(8.2)	60(10.7)	57(10.2)	55(9.8)	59(10.5)	34(6.1)	42(7.5)	155(27.6)	51(9.1)	551(100.0)
30~39	42(7.7)	26(6.6)	47(8.7)	53(9.8)	69(12.7)	54(10.0)	42(7.7)	152(28.0)	47(8.7)	542(100.0)
40~49	14(3.9)	23(6.4)	52(14.4)	43(11.9)	31(8.6)	35(9.7)	29(8.1)	104(28.9)	29(8.1)	360(100.0)
50~59	8(2.8)	22(7.8)	30(10.6)	40(14.2)	35(12.4)	17(6.0)	15(5.3)	92(32.6)	23(8.2)	282(100.0)
60~69	3(3.4)	8(9.2)	10(11.5)	11(12.6)	5(5.7)	3(3.4)	-	41(47.1)	6(6.9)	87(100.0)
70이상	1(11.1)	-	1(11.1)	3(33.3)	2(22.2)	-	-	1(11.1)	1(11.1)	9(100.0)
무응답	-	-	-	-	1(20.0)	-	-	4(80.0)	-	5(100.0)
계	114(6.2)	149(8.1)	197(10.7)	205(11.1)	202(10.9)	143(7.7)	128(6.9)	549(29.7)	157(8.5)	1846(100.0)

表 3-3. 學歷別 飲酒程度

주량 학력	맥주1잔	2 잔	1 병	2 병	3 병	5병이상	10병이상	안마신다	무응답	계
	No. (%)	No. (%)	No. (%)	No. (%)	No. (%)	No. (%)	No. (%)	No. (%)	No. (%)	No. (%)
무 학	5( 4.8)	10( 9.5)	11(10.5)	8( 7.6)	9( 8.6)	3( 2.9)	2( 1.9)	43(41.0)	14(13.3)	105(100.0)
국민학	8( 3.2)	22( 8.8)	24( 9.6)	28(11.2)	18( 7.2)	16( 6.4)	10( 4.0)	101(40.2)	24( 9.6)	251(100.0)
중 학	24( 7.1)	25( 7.4)	35(10.3)	37(10.9)	35(10.3)	22( 6.5)	28( 8.2)	114(33.5)	20( 5.9)	340(100.0)
고등학	52( 6.4)	66( 8.1)	85(10.5)	38(10.2)	91(11.2)	64( 7.9)	54( 6.7)	230(28.3)	88(10.8)	812(100.0)
대 학	25( 7.6)	24( 7.3)	42(12.7)	48(14.5)	47(14.2)	38(11.5)	32( 9.7)	60(18.2)	16( 4.8)	330(100.0)
대학원 이상	-	-	-	1(20.0)	2(40.0)	-	2(40.0)	-	-	5(100.0)
계	114( 6.2)	149( 8.1)	197(10.7)	205(11.1)	202(10.9)	143( 7.7)	128( 6.9)	549(29.7)	159( 9.6)	1864(100.0)

表 3-4. 職業別 飲酒程度

주량 직업	맥주1잔	2 잔	1 병	2 병	3 병	5병이상	10병이상	안마신다	무응답	계
	No. (%)	No. (%)	No. (%)	No. (%)	No. (%)	No. (%)	No. (%)	No. (%)	No. (%)	No. (%)
농어업	12( 4.7)	19( 7.5)	30(11.8)	32(12.5)	38(14.9)	18( 7.1)	19( 7.5)	72(28.2)	15( 5.9)	255(100.0)
회사원	7( 3.3)	23(10.8)	32(15.1)	23(10.8)	30(14.2)	24(11.3)	14( 6.6)	41(19.3)	18( 8.5)	212(100.0)
공무원	19( 7.8)	18( 7.4)	26(10.7)	32(13.2)	35(14.4)	23( 9.5)	24( 9.9)	45(18.5)	20( 8.2)	243(100.0)
서비스	10( 4.3)	19( 8.1)	28(11.9)	34(14.5)	28(11.9)	16( 6.8)	19( 8.1)	63(26.8)	18( 7.7)	235(100.0)
상 업	18( 4.4)	33( 8.1)	39( 9.5)	53(13.0)	47(11.5)	37( 9.0)	33( 8.1)	128(31.3)	21( 5.1)	409(100.0)
학 생	7( 8.2)	10(11.8)	7( 8.2)	10(11.8)	12(14.1)	9(10.6)	4( 4.7)	22(25.9)	3( 3.5)	85(100.0)
교직원	4(10.5)	3( 7.9)	8(21.1)	2( 5.3)	-	5(13.2)	4(10.5)	8(21.1)	4(10.5)	38(100.0)
기 타	37(10.1)	24( 6.6)	27( 7.3)	19( 5.2)	12( 3.3)	11( 2.7)	11( 3.0)	170(46.2)	58(15.8)	369(100.0)
계	114( 6.2)	149( 8.1)	197(10.7)	205(11.1)	202(10.9)	143( 7.7)	128( 6.9)	549(29.7)	159( 8.6)	1846(100.0)

마) 飲酒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

〈표3-5〉에서 보는바와 같이 飲酒에 영향을 주는 要因으로 性別, 教育程度, 職業, 年齡, 結婚狀態 등을 변수로 하여 중다회귀 分析을 한 결과는〈표3-5〉였다. 飲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B=.1545로서 性別이었

고, 다음은 教育으로 B=.1476이며 職業은 B=.1064로 飲酒에 기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1%수준에서 統計學的으로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었다(p<0.01). 따라서 性別, 教育, 職業, 年齡, 學歷 등의 順으로 飲酒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들의 說明力은 18%였다.

表 3-5. Variance Explained by Variables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Drinking Alcohol.

Variable	STB	F	BETA	R <sup>2</sup>
Sex	.6362	13.2573**	.1545	.1697
Education	.5492	12.4725**	.1476	.1699
Occupation	.6295	18.5242**	.1064	.1712
Age	.3712	2.9678*	.1052	.1764
Marital Status	.1052	1.5241	.0878	.1082
Constant	.4124			
R <sup>2</sup>	.18021	(df=5)		

\*p<0.05 \*\*p<0.01



#### IV. 結論 및 提言

本 研究는 1988年 8月 3日부터 8月 22日까지 20일간 大學生들을 調査員으로 選拔하여 教育시킨 후 全國의 132個郡의 邑面地域·郡保健所 所在地에 現地 出張시켜 吸煙과 飲酒에 대한 設問에 의거 1,846名의 住民과 面接 調査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農村住民의 吸煙率은 41.8%였으며 性別로는 男子는 76.0%, 女子는 7.6%로 1985年과 1988年의 吸煙率 全國值 32.0%와 36.6%보다 크게 增加하였으며 특히 女子의 吸煙率이 큰 폭으로 增加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吸煙量은 男子는 1日 한갑(20개들이), 女子는 2日에 한갑 吸煙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年齡이 높을 수록 吸煙率은 높았으나 吸煙量은 줄어들었다.

또한 教育程度가 높을 수록 吸煙率과 吸煙量이 높았으며 職業別로는 吸煙率은 農漁業에서 가장 높았고 公務員, 敎職員의 順이며 吸煙量은 公務員에서 가장 높고 農漁業, 商業, 敎職員, 서어비스업, 會社員 順이었다.

2. 吸煙에 가장 큰 影響을 미치는 變數는 性別이었고 다음이 職業, 教育程度, 年齡의 順으로 影響을 미쳤다.

3. 農村住民의 飲酒率은 61.8%였으며 男子는 81.7%, 女子는 38.9%였고 女子의 飲酒率이 男子보다 엄청난 增加를 보였다. 非飲酒率은 年齡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飲酒量은 一般的으로, 男子는 맥주3병 女子는 맥주2잔이 가장 많았으며 年齡이 높을 수록 飲酒量은 줄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學歷이 높을수록 飲酒量과 飲酒率이 높았으며 職業別 飲酒率은 公務員(73.3%), 會社員(72.2%), 敎職員(68.4%)의 順으로 높아 精神勤勞者에서 높았고 飲酒量은 맥주 3병은 農漁業, 公務員에서 높았고 맥주 10병은 敎職員, 公務員에서 높아 敎職員과 公務員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4. 飲酒에 가장 크게 影響을 미치는 變數는 性別이었으며 다음으로 教育程度, 職業, 年齡의 順이었다.

5. 吸煙과 過量飲酒에 의한 健康障礙에 대하여 國家的 차원에서 보다 效果的으로 教育, 홍보해야 할 것이며 특히 女性을 대상으로 禁煙 캠페인을 하고 公務員등 專門職種에 대하여는 職務教育時에 過飲을 피하도록 적극 教育해야 할 것이다.

6. 學歷이 吸煙과 飲酒行爲에 크게 影響을 미치므로 學校教育에서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健康學習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教育「프로그램」이 開發되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1. 孔世權 外, 韓國의 死亡力과 死亡原因, 韓國人口 保健研究院, 1983.
2. 具然哲, 農村住民의 保健意識, 大韓保健協會誌, 4卷 1號, 1976.
3. 具聖會, 公衆保健學, 高文社, 1987.
4. 權彝赫, 最新保健學, 新光出版社, 1978.
5. 권동원, 전국흡연 실태조사, 대한결핵협회, 1985.
6. 金建烈, 吸煙과 健康, 大韓保健協會誌 12卷 2號, 1986.
7. 金命鎬, 保健에 관한 社會教育의 現況과 課題, 大韓保健協會誌, 4卷 1號, 1976.
8. 金貞順, 전국 일부 영세지역주민의 상병양상과 보건문제에 관한 연구, 보건학논집, 제30호, 1988.
9. 金駟舜, 우리나라 국민의 吸煙實態, 吸煙과 國民保健세미나, 大韓保健協會, 1989.
10. 南詰鉉, 國民保健意識 行態調查研究, 韓國人口保健院, 1984.
11. 南詰鉉, 血中알콜 濃度에 따른 作業能率의 變動, 中央醫大雜誌, 1卷 1號, 1974.
12. 柳東俊, 成人病管理, 癸丑文化社, 1979.
13. 鄭奎徹, 地域社會保健, 수문사, 1986.
14. 田中明夫, 保健衛生基礎調査(保健意識), 厚生統計協會, 昭和52.
15. 鄭文鎬, 一部 地方公務員들의 吸煙 및 飲酒實態調查, 大韓保健協會誌, 7卷 1號, 1981.
16. 李熙大, 飲酒被害에 대한 保健經濟學的 考察, 論文集 4輯, 大邱韓醫科大學, 1986.
17. 리스 PR연구소, 대도시 주민의 흡연실태 조사, 1986.
18. Anderson, C.L, Health principles and practice, The C.V. Mosby. 1978.
19. Hammand, E.C. & Horn, d, Smoking and Death Rate J. American Med. Association, 1958.

20. Harris, Daniel M.& Gaten, Health protective Behavior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Health & Social Behavior, Vol.20:17-29, 1979.
21. Pearl, L., Tobacco Smoking and Longevity, Science 38, 1983.
22. Royal College of physicians of London, Smoking and health Now, A New, Report and Summary on Smoking and It's effects on Health, Pitman Scientific company, 1971.
23. Turner, C.P, School Health and Health Education, 1979.

(Abstract)

## An Analysis of Determinants of Smoking and Drinking of Community people in Rural area

Chul Hyun Nam

School of Public Health, Taegu Oriental Medical College

The study was designed to analyse the factors effecting to smoking and drinking of community people in rural area. The study has been surveyed through interviews by trained college students for 1,846 residents who live in rural area (Eup or Myun office is located) for 20 days (from 3rd. to 22nd. in August, 1988)

The summary and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The number of answers on the questionnaires was 1846. And the percent of man was 55.7% (woman 44.3%). Among age group 20-29 years group with 30.4% was larger than any other group. An average age of answers was 38.6 years.

2. In the period of residence, 21.5% of the residents lived within 5 years (This group was larger than any other group). In occupations, workers in agriculture and fishing was more than other job occupants. In education, the percent of high school graduates was 44.0% (higher than any other group)

3. The smoking rate of rural residents was 41.8% and man's smoking rate was 76.0% (woman's smoking rate was 7.6%). These rates were higher than the rates in 1985 (The smoking rate of nation was 32.0%). First of all, woman's smoking rate increased rapidly

4. As for smoking amount, in male 52.8% of smokers smoked a cigarette case (20 cigarettes) in a day, and 16.9% of smokers smoked more than one cigarette case. In female 42.5% of woman smokers smoked a half case in a day and the rate of non-smokers diminished to 77.8%

5. The rate of non-smokers in 21-29 years group was higher than any other group and a smoking rate increased as an age increased. However, a smoking amount decreased as an age increased. This suggests that people are more concerning about their health as their ages increase.

6. The smoking rate of college graduates was 58.8% (higher than any other group) and in a smoking amount 36.4% of college graduates, 29.8% of high school graduates smoked more than a cigarette case in a day. This shows that people in a higher education group smoke more than those in other groups.

7. As for non-smoking rate, students, service job workers, company employees, and teachers was 54.1%, 43.4%, 40.1% and 39.5%, respectively. As for smoking rate, workers in agriculture and fishing was the highest level of all job employees. Public officers smoked less than the workers in agriculture and the smoking rate of teachers was less than that of public officers. with regard to smoking amount, above one cigarette case in a day was 39.9% in public officers, 39.2% workers in agriculture and fishing, 37.9% in businessmen, 34.2% in teachers, 31.9% in service job employees and 31.6% in a company employees.

8. The variables which had an effect on smoking were sex ( $B = .1701$ ), job ( $B = .1688$ ), education ( $B = .1671$ ), age ( $B = .1125$ ). These variables were significant in  $P < 0.05$  statistically. Explanatory variance level was 19%

9. The drinking rate of community residents was 61.8% and man's drinking rate was 81.7% (woman's drinking rate was 38.9%). As drinking rate 18.0% (the highest rate) of man drinkers drank 3 bottles of beer in a general drinking and 12.1% of them drank more than 10 bottles. 12.1% (the highest rate) of woman drinkers drank 2 cups of beer. The rising rate of woman's drinking of alcohol was remarkable.

10. Each non-drinking rate of age groups was 27.6% (in 20-30 years group), 28.0% (in 30-39 years group), 28.9% (in 40-49 years group) and 32.6% (in 50-59 years group), 10.7% (the highest rate) of 20-29 and 30-39 years groups drank above 3 bottles. 7.5% of 20-29 years group and 7.7% of 30-39 years group drank above 10 bottles. In 40-49 years group, 14.4% of them drank a bottle and 8.1% of them drank above 10 bottles. In 50-59 years group, 14.2% of them drank 2 bottles and 5.3% of them drank above 10 bottles. This shows that a drinking rate decreased as an age increased.

11. Non-drinking rate was higher as an education level was lower. Each non-drinking rate of non-educated group, elementary school group, middle school group and high school group was 41.0% of high school graduates and 14.5% of college graduates drank 3 bottles of beer. 9.7% (the highest rate) of college graduates drank above 10 bottles, in general drinking.

12. Each non-drinking rate of businessmen, farmers, service job workers, and students was 31.3%, 28.2%, 26.8% and 25.9%. However, Each drinking rate of public officers, company employees and teachers was 73.3%, 72.2% and 68.4%. This tells us that the drinking rate of mental workers is higher than that of physical workers. 14.9% of farmers and 14.4% of public officers drank 3 bottles at a time. 10.5% of teachers and 9.9% of public officers drank above 10 bottles.

13. The variables which affect on drinking were sex ( $B=.1545$ ), education ( $B=.1476$ ), job ( $B=.1064$ ), and age ( $B=.1052$ ). These variables were significant in the level of 0.05% and explanatory variance level was 18%.

14. Government have to educate people and demonstrate the health hazards caused by smoking and over-drinking. Especially, No-smoking campaign for woman and education not to over drink for professional job workers are necessary.